

포커스-e제품

신개념 프리미엄 컴팩트 카메라로 국내 마케팅 '시동'

삼성디지털이미징(주) 하반기 전략 제품
발표회 개최

●●● 취재 | 박지연 기자 |

삼성디지털이미징과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개념 전략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마케팅에 나섰다. 삼성디지털이미징과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5일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1층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삼성 'VLUU ST550'과 'VLUU ST1000'을 소개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능, 세련된 디자인의 프리미엄 컴팩트 카메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앞서 8월 13일 뉴욕을 필두로 전 세계에 소개된 이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삼성 카메라는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신제품 삼성 VLUU ST550과 삼성 VLUU ST1000이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마케팅으로 판매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 측은 우선 각 제품의 특성을 살린 '애칭 마케팅'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듀얼 LCD를 탑재한 ST550은 거울처럼 보며 찍는 것을 강조해 'VLUU MIRROR(블루 미러)'로, 3가지 무선 기능을 내장한 ST1000은 Wireless(무선)와 Link를 조합해 'VLUU WINK(블루 링크)'라는 애칭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핵심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신제품의 혁신적인 기능을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마케팅도 전개한다. 매장은 물론 도심과 대학가를 직접 방문해 셀프 촬영, 어린이 촬영 모드 등 듀얼 LCD를 활용한 새로운 사용법과 무선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법, 터치 방식의 제스처 UI 등 다양한 기능을 소



▶ 밝고 맑은 이미지로 인기가 높은 멜런트 한효주를 신제품 광고 모델로 내세운 삼성은 8월 말부터 TV 광고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비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모션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문 사진작가가 직접 '신제품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사진 강좌를 열고, 삼성전자 홍보관인 딜라이트에는 셀카 및 무선 체험존을 구성, 언제든지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는 밝고 맑은 이미지로 인기가 높은 삼성 카메라의 신제품 광고 모델, 한효주가 나오는 TV 광고를 통해



▶모델들이 삼성카메라 신제품 'VLUU ST550' 과 'VLUU ST1000' 을 선보이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동안 김민준, 비(정지훈), 장동건 등 정상급 스타를 통해 삼성 카메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높였다면, 이번에는 한효주의 발랄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박재순 전무는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 카메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능,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인터넷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WB550, WB1000에 이어 블루 미러 ST550과 블루 링크 ST1000으로 카메라 활용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국내 카메라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후지필름(주), 3D카메라 9월중에 첫선

9월중에 3D(3차원) 촬영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다.

한국후지필름(대표·이창균)은 지난 8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D 촬영이 가능한 세계 최초 3D 디카 '파인픽스 리얼 3D W1'을 발표하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리얼 '3D W1'은 좌우에 두개의 렌즈가 장착돼 있다. 이 두개의 렌즈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이 합성돼 3D를 만들어 낸다. 본체에 내장된 리얼 포토 엔진 3D를 통해 합성되고, 내장 디스플레이를 통해 입체감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또 두개의 렌즈와 센서를 이용해 하나는 흑백, 하나는 컬러로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며, 같은 피사체를 광각과 망원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이창균 대표는 "3D 신기술과 슈퍼 CCD EXR기술은 인간의 눈을 닮고자 하는 후지필름의 기본 철학을 담은 이미징 기술의 집약체로써 3D 디카를 선보이게 됐다"며 "이 같은 기술력이 향후 후지필름이 디카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3D 신기술은 후지필름만의 3D 이

미징 처리기술인 RP(Real Photo)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두 개의 센서와 렌즈로 각각 촬영한 이미지를 합성, 입체안경 없이도 3D 이미지 촬영 및 감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후지필름이 세계 최초로 3D 촬영이 가능한 디카 '파인픽스 리얼 3D W1'을 선보였다.